

## 욕망의 담론: 들뢰즈의 〈피네간의 경야〉 읽기\*

전 은 경

Reading a text is never a scholarly exercise in search of what is signified, still less a highly textual exercise in search of a signifier. Rather, it is a productive use of the literary machine, a montage of desiring machines, a schizoid exercise that extracts from the text its revolutionary force.

- Deleuze and Guattari, *Anti-Oedipus* -

look at this prepronominal funereal, engraved and retouched and edgewiped and puddenpadded, very like a whale's egg farced with pemmican, as were it sentenced to be nuzzled over a full trillion times for ever and a night till his noddle sink or swim by that ideal reader suffering from an ideal insomnia

- *Finnegans Wake* - (120. 9-14)

17년간의 오랜 각고끝에 탄생한 〈피네간의 경야〉는 실로 서구문학사상 유례없는 언어구사, 문학기법, 그리고 그 난해성 때문에 독자를 당혹케 한다. 조이스가 이 작품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가 다루고자 했던 이 주

---

\* 이 논문은 1997년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는 극히 보편적인데 비해 이의 표현구조는 단연 혁신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혁명에는 그러나 주제면에서는 독특한 사상을 창출해내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성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일상성은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장하여 급기야 범우주적인 성격을 띄게된다. 이 작품의 구상에 몰두하는동안 조이스는 그의 후원자였던 헤리엇 쇼 위버(Harriet Shaw Weaver)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쓰려고 하는 작품(〈피네간의 경야〉)은 세계의 역사에 대한 것이며, 이 작품의 주인공은 “Time and the river and the mountain”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네간의 경야〉는 이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일으킨 특기할만한 사건을 다루기 보다는 강과 산을 전면면에 내세우는 말하자면 범우주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건 또한 특정한 시공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인류역사를 통하여 유구하게 반복하는 원형적 사건들이다.

이처럼 범우주적인 주제를 다루고있는 이 작품에서 감지되는 세계는 그러나 초월적인 질서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지 않다. 무한한 혼돈과 다성(多聲)성, 끊임없는 변모와 생성성이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상의 특징이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른 차원의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텍스트상의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이 작품을 읽어나가는데 있어 독자는 전통적인 소설에서 보는 스토리 전개나 인물묘사, 주제의 전개 등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다시말해서 그는 다른 지도(地圖)를 필요로 하는 소위가 여기에 있다.

조이스 연구는 어떤 면에서 연구대상 작품이나 논의의 주제에 있어서 종래의 비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피네간의 경야〉는 실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작품 고유의 텍스트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문학 비평이론 만으로는 미흡할 뿐더러 적절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 그동안 불가해함과 난해함으로 신비에 싸여있던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조이스 학계의 연구는 해체주의 비평이론이 발단이 되어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박차가 가해졌고, 이에 대한 하나의 결실이 1984년에 출판된, *Poststructuralist Joyce: Essays from the French*이다. 그러나 데리다, 라캉, 크리스테바, 그리고 들뢰즈, 가타리와 같은 해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어느 작품보다도 〈피네간의 경야〉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역으로 〈피네간의 경야〉가 해체주의를 촉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철학적, 정치적 사고의 유형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적 감성에 있어서 이 작품과 해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의 해체주의적 이론을 시점적 근거로 하여 〈피네간의 경야〉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들의 사고의 해체성은 놀랍도록 대담하게 상이한 시각에서 모든 사물을 새롭게 파악하게 한다. 다분히 문학적인 철학서인 이들의 공저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1983)와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1987)에서 들뢰즈, 가타리는 자신들의 해체주의 이론을 몇가지 주요 메타포인 “desiring machine”, “schizophrenia”, “rhizome”, “delire”, “nomad”, 또는 “body without organ” 등을 통하여 설명한다. 이 저서명이 암시하듯 이들의 이론에서는 심리분석과 유물론이라는 상이한 접근의 융합을 시도한다. 얼핏 서로 동떨어져 보이는 맑시즘과 프로이트의 심리분석학의 두 분야 사이에 어떤 교차점이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될 것이다. 맑시즘과 심리분석학의 결합의 문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불란서 철학계의 지배적인 이슈이며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은 이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제시되었다.

들뢰즈, 가타리의 이론에서 ‘욕망(desire)’에 대한 이해는 특히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 이들은 욕망의 본질을 다시 규명하며 이것의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발현을 지적한다. 이들의 욕망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 현대사회와 이 시대를 살고있는 현대인에 대한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욕망에 대하여 들뢰즈, 가타리가 부여한 다차원적인 본질과 작용방식은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상의 특질과 서술방식, 언어기법과 상통하는 면이 크다 하겠다. 어떤면에서 욕망에 대한 설명이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 본질에 대한 설명에 버금한다. 사회과학과 정신분석학이라는 서로간에 이질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는 이 두 분야가 서로를 회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존하게하는 욕망에 대한 이해는 〈피네간의 경야〉의 복합적 텍스트성과 마찬가지로 해체주의적인 시각에서 가능할 수 있다.

조이스와 들뢰즈, 가타리는 각기 텍스트의 내용의 전개방식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피네간의 경야>의 서술에 있어서 일직선상으로 풀듯이 전개되지 않듯이 들뢰즈와 가타리는 <앙띠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에서 자신들의 이론은 전개해 가는데 있어 일직선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이들의 논지는 따라서 논리정연한 하나의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짚막한 독립적인 부분들로 짜여져 있다. 자신들이 제시한 메타포대로 하늘을 향하여 곧게 뻗어가는 나무("tree")와 같은 구조를 갖기보다는 땅속에서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근경("rhizome")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출입구가 아니라 수많은 출입구를 통하여 사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욕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들뢰즈, 가타리가 택한 메타포와 그에 부여하는 의미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보는 텍스트상의 매카니즘과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 향방을 같이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은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 한 안내자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에 대한 이론을 그들의 주요 메타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 I.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성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는 밤시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낮시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이성과 논리의 통제는 자연히 약화되어 꿈과 욕망, 이성과 논리는 서로 또렷한 구분이 없이 뒤섞여 짐짓 꿈의 언어를 표방하고 있다. 조이스는 머칸톤(Mercanton)과의 인터뷰에서 "I reconstruct the nocturnal life, as the Demiurge goes about the business of creation, starting from a mental outline that never varie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 obey laws I have not chosen. While He . . . ?"(Potts, 209)라고 말했듯이 <피네간의 경야>는 굳히 밤의 의식과 꿈의 형태를 빌려 인간의 심층적 본질을 탐구한다. 자연히 이 작품의 스토리 전개, 인물묘사, 언어구사는 꿈의 작용에 의하여 상식적 논리를 뛰어넘어 과장되기도하고, 예측불허이며 도시

종잡을 수 없게 혼란스럽다. 이 작품에서 조이스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시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시공을 넘나들며 종횡무진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의 어느 한 문구라도 그 안에는 내용상 서로 상이한 내용들, 예를 들면, 화학공식, 아일랜드 신화, 철학, 역사, 심리학, 고전문학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마치 얹힌 실타래처럼 서로 뒤엉키어 각기 다른 담론들의 혼성 상태를 이루어낸다. 어휘와 문장은 기본적으로는 영어이지만 단어, 어구, 문장들은 모두 의미상 중첩적이며 또한 끊임없이 해체되면서 동시에 재조립되게끔 쓰여 있어 다층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한 언어체제로 말해지는 이 작품안의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가 일관성있게 전개되어가기 보다는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내면적 갈등을 반영하는 수많은 작은 이야기가 끝없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스토리 전개는 결말을 향하여 진전되어가기 보다는 마치 변주곡처럼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담론들, 예를 들면 문학, 역사, 로맨스, 성서, 켈트족의 전설,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무용담, 회람신화, 더블린의 민담, 등의 서술형식으로 되풀이되어 말해진다. 다름아닌 “scherzarade of one's thousand one nightinesses”(FW 51. 4-5)인 것이다. 이야기는 어떤 일정한 구도속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어되지 않는 충동에 의하여 시작도 끝도 없이, 그리고 당위성보다는 우연성에 의하여 종잡을 수 없이 옆가지를 쳐 나가고 있다. 인간의 심층을 다루는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에서는 소위 이성/비이성, 센스/넌센스의 경계도 무너지며 다른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네간의 경야〉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riverrun, past Eve and Adam's, from swerve of shore to bend of bay, brings us by a commodius vicus of recirculation back to Howth Castle and Environs. (FW 3.1-3)

윗 글은 작품의 첫 문장으로 이 작품의 서문격이므로 장소를 소개한다. 첫 문장 riverrun, past Eve and Adam's는 지리를 나타내는데, 첫 단어 riverrun은 이 작품의 끝맺는 단어인 the와 연결됨으로써 작품의 시작과 끝

이 서로 이어져 계속 순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강은 더블린을 가로질러 흐르는 리피강이며 Adam and Eve는 리피 강둑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의 인류의 시조를 나타내며 이와함께 인간의 타락과 인류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아울러 성(gender)의 양극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commodius vicus는 넓은 비코 길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으나 또 한편 commodius는 로마의 황제 Lucius Aelius Aurelius Commodus의 이름을 암시하기도 한다. vicus는 라틴어로 마을이란 의미도 있고, 또는 지형적 의미로 더블린 교외의 달키 해변에 있는 Vico Road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또다른 의미로, 이 작품에서 무척 중요한 인물인 이탈리아의 역사철학자인 Giambattista Vico(1668-1744)를 뜻하기도 한다. <피네간의 경야>의 네장으로 이루어진 작품구조는 비코의 네 단계에 걸친 인간의 역사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recirculation은 강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비코가 주장하는 역사 진행 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뜻하기도 한다. Howth는 조이스가 그의 편지(Letters, I, 247)에서 밝히기로는 덴마이크어로 hoved(head)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Howth는 더블린의 북쪽에 있는 언덕의 지명이기도 하다. 이곳은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인 HCE가 잠들어 매장되어있는 산야인 거인의 언덕(혹은 고분)이 있는 곳이다. Howth Castle and Environs는 산야인 동시에 이니셜로 HCE를 가리켜 남성임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나온 여성을 상징하는 강물이 남성을 나타내는 호우드언덕을 돌아 흐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Howth Castle and Environs는 역사적 문맥에서 보아도 의의가 깊다. Howth Castle and Environs는 성 로렌스家の 영지였다. Lawrence란 더블린의 보호성인이며 앵글로 노르만족이 아일랜드에 침입해 들어왔던 당시의 영국왕인 헨리 2세를 지지했었던 더블린의 대주교였던 St Laurence O'Toole이기도하다. 또한 St Lawrence family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가정의 이름은 미국 지명이기도 하다. 미국의 조지아 카운티는 정치가인 Henry Laurens(1724-92)나 그의 아들 John(1752-82)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데(Glasheen, 160) 이곳의 오크네 강을 끼고 있는 이 주에 있는 더블린은 군청소재지인데 인구가 적어 Doubling all the time이란 표어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진 문단에서 언급되고 있다.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는 리얼리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언

어에 의하여 리얼리티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어와 문장은 철자법과 문법에서 탈피하여 기표와 기의가 직결되는 법이 없이 언어가 자생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도록 쓰여졌다. 자연히 스토리도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일관되게 전개되지 않고 단선적이며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말해지거나 아니면 사방으로 뻗어 나간다. 조이스 자신의 말대로 “wideawake language, cutanddry grammar and goahead plot”(Letters, III, 146)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를 고정화하는 문법에서 탈피한 이 텍스트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존재처럼 다이내믹하고 유동적으로 되어, 이러한 텍스트를 읽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의 activity가 된다.

〈피네간의 경야〉와 같은 텍스트에서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에서도 다층적 의미를 산출하게하는 언어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여러 의미로 의미의 폭을 계속하여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에서는 어떤 한 목표점을 향하여 의미를 일관되게 전개해 나갈 수 없다. 대신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machine만이 있을 뿐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자신들의 욕망에 대한 이론과 관련하여 이것의 작용방식을 설명하기위하여 tree와 rhizome라는 두개의 상반된 메타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메타포들은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성과 그것의 작용방식과 흡사하다.

Let us summarize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a rhizome: unlike trees or their roots, the rhizome connects any point to any other point, and its traits are not necessarily linked to traits of the same nature; it brings into play very different regimes of signs, and even nonsign states. The rhizome is reducible neither to the One nor the multiple. It is not the One that becomes Two or even directly three, four, five, etc. It is not a multiple derived from the One, or to which One is added ( $n+1$ ). It is composed not of units but of dimensions, or rather directions in motion. It has neither beginning nor end, but always a middle *milieu* from which it grows and which it overfills. It constitutes linear

multiplicities with  $n$  dimensions having neither subject nor object, which can be laid out on a plane of consistency, and from which the One is always subtracted ( $n-1$ ). When a multiplicity of this kind changes dimension, it necessarily changes in nature as well, undergoes a metamorphosis. Unlike a structure, which is defined by a set of points and positions, with binary relations between the points and biunivo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ositions, the rhizome is made only of lines: lines of segmentarity and stratification as its dimensions, and the line of flight or deterritorialization as the maximum dimension after which the multiplicity undergoes metamorphosis, changes in nature . . . . Unlike the tree, the rhizome is not the object of reproduction: neither external reproduction as image-tree nor internal reproduction as tree-structure . . . . The rhizome operates by variation, expansion, conquest, capture, offshoots. Unlike the graphic arts, drawing, or photography, unlike tracings, the rhizome pertains to a map that must be produced, constructed, a map that is always detachable, connectable, reversible, modifiable, and has multiple entryways and exits and its own lines of flight . . . . In contrast to centered (even polycentric) systems with hierarchical modes of communication and preestablished paths, the rhizome is an acentered, nonhierarchical, nonsignifying system without a General and without an organizing memory or central automaton, defined solely by a circulation of states.

(*A Thousand Plateaus*, 21)

들뢰즈, 가타리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이를 욕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Rhizome”라는 땅속에서 뻗어나가는 줄기, 곧 근경(根莖)을 가르키는 이 말은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이론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메타포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이 욕망이 마치 땅속의 근경이 퍼져나가듯이 삼투되어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중심적 권력위주로 위계질서를 세워서 다양한 다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arborescences*라고 표현했고, 이와는 상반되게 다수위주로 중심과 상층구조에 복종하지않고 욕망의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근경으로 표현했다. 나무와 근경은 서로 반대되는 메타포로, 나무가 뿌리, 몸체, 나무가지와 같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면 근경은 지하에서 무정부적으로 뻗어나가며 급증한다. 나무는 중심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하여 구조를 형성해가고 이분법을 통하여 작용해가는 반면 근경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구분이나 배척과 같은 차등화를 하지않고 계획이나 질서가 없이 증식한다. 나무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니는데 비해 근경은 중심도 없고 구조 또한 없다. 들뢰즈는 그의 저서 *Rhizome*에서 근경과 같은 체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기서 이것의 특성을 가리켜 “an acentered system, nonhierarchic and nonsignifying, . . . without organizing memory or central automaton, uniquely defined by the circulation of states” (*Rhizome*, 62-3)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 근경의 본질을 ‘flight’(도주)와 ‘deterritorialization’(‘탈영토화’), 그리고 증식이라고 특징지었다. 증식이란 언제나 질서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 가타리는 국가의 형태의 메타포로는 중앙집권적 국가(state)와 유목민(nomad)를 제시하는데 나무와 국가가 같은 체제를 갖춘 것이라면 근경은 유목민과 동일시했다. 이러한 들뢰즈의 메타포를 특성상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체 중심으로 발달되는 조직체이며 법이라는 구조적 성격을 띤 것과,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분야별 구분이나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분야에든지 두루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지속적인 작용을 하는 중심이나 주체가 없는 성질을 지닌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욕망은 후자에 속한다.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는 나무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갈 것을 거부하면서 마치 근경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그리고 때로는 어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진로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증식한다. 자연 서술은 유동적이며 텍스트는 종장에서 인위적인 끝맺음을 할 뿐 결코 결말이라는 것이 없다. 나무의 메타포가 암시하는 질서와 이분법적 성장,

기원과 뿌리, 중심과 본체는 다원적인 진행을 하는 이 텍스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들뢰즈, 가타리가 말하고자 하는 욕망의 유출방식은 또한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와 서술의 방식이기도 하다. 〈피네간의 경야〉에는 통일된 의미도 없고 이를 관장해나갈 동일한 주체도 없기 때문이다.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의 기계(desiring machine)”와도 같이 이 작품은 로고스가 없으므로 언어에 대한 통제도 없다. 곧 언어는 형이상학적이기 보다는 물질적 속성을 지니며, 추상적, 관념적이기보다는 욕망의 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묘미는 유출적 리얼리티에 있다고 본다. 텍스트는 마치 살아있는 신체처럼 libido의 에너지로 넘쳐있으며 의미를 부단히 양산해낸다.

다양한 의미를 스스로 산출해내고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기법은 기존의 사고체계에 와해를 가져와 〈피네간의 경야〉에 들어서면 순간 독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전혀 낯선 세계에 들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자아내는 그 당혹스러움과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생에 대한 포용력과 역동적인 힘을 또한 느끼게 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작품은 단순히 무의미한 혼돈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니다. 무한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는 삶과 리얼리티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해진 삶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 다른 논리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밤과 꿈이라는 베일에 쌓여있어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의식의 저변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은 완성되기전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Work in Progress’라는 임시적 명칭으로 문학지에 조금씩 게재되었었는데, *Vanity Fair*의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Are the sketches in ‘Work in Progress’ consecutive and interrelated?”라는 질문에 대한 “It is all consecutive and interrelated”(Letters, III, 193, note 8)라는 조이스의 대답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네간의 경야〉의 독특한 텍스트성과 그것이 암시하는 그 나름의 논리와 질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텍스트상의 메카니즘은 어떠한 성질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움직여가고 있는 것일까. 언어는 사고의 유형과 직결되어 있다면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는 어떠한 사고를 표출하는 것일까.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상의 특질을 가리켜 on the process, heterogeneity, instability, simultaneity, proliferation(productivity), flight, contingency, ceaseless change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 텍스트성은 조이스의 언어와 관련하여 들뢰즈와 가타리가 그들의 저서 *A Thousand Plateaus*에서 "Joyce's words, accurately described as having 'multiple roots,' shatter the linear unity of the word, even of language, only to posit a cyclic unity of the sentence, text, or knowledge. Nietzsche's aphorisms shatter the linear unity of knowledge, only to invoke the cyclic unity of the eternal return, present as the nonknown in thought."(*A Thousand Plateau*, 6)라고 언급한 것과 본질에 있어 맥을 같이한다. 조이스 언어는 multiple roots처럼 동시다발적인 의미확산을 해나가고 있으며 스토리 전개는 일직선적인 단일성을 이루기 보다는 필연적으로 순환적인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들뢰즈, 가타리는 니이체의 역사관에 비유하고 있는데, 곧 역사는 일직선상으로 발전해가기 보다는 반복한다는 순환설에 비유하고 있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복합적 의미를 산출하게끔하는 서술기법은 어떤면에서 자연히 목적론적 패턴보다는 반복적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이는 이 작품의 구조에 있어 비코의 역사순환설을 바탕으로하는 순환적 구조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피네간의 경야>텍스트의 'ricorso'적 특징은 리얼리티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방식에 의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곧 꿈이라는 잠재의식속에서 감지하는 리얼리티는 의미상 표면적으로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여 포착하기 어렵기만하다. 뿐만아니라 리얼리티는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며 진실된 의미를 알아내기위해 거듭하여 여러각도에서 말해진다. 이 리얼리티는 <피네간의 경야>의 1권 5장에서 애나 리비아아 썼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편지인 *Mamafesta*처럼 다양한 해석만 산출할뿐 그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애나의 이 복합적 형태의 편지에는 거의 세 페이지에 달하는 여러시대에 걸친 다양한 장소에 속한 사람들로 이 편지에 대한 해석을 제의한 자들로 여겨지는 이들의 이름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의 끝에 이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First and Last Only True Account all about the Honorary Mirsu Earwicker, L.S.D., and the

Snake(Nuggets!) by a Woman of the World who only can Tell Naked Truths . . . .”(FW 107.1-4)라는 광고문 조의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여러 형태의 성전(“The proteiform graph itself is a polyhedron of scripture”(FW 107.8))에 대해서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한 채 반복하여 원전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뿐이다. 마치 HCE의 “Fall”에 대하여 작품에서는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이야기되지만 이야기와 해석만 무성할 뿐 그에 대한 완전한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결국 정답의 존재여부가 의심이 되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의 방법과 언술행위 그 자체이지 물음에 대한 정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HCE의 “Fall”과 그의 오명을 벗기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리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할 수 있다. 편지의 내용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탐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다. 편지내용에 대한 탐구는 결국 작품에서 어떠한 해결도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편지에 대한 애매모호성과 불확실성은 그에 대한 탐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편지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풀고자하는 의욕은 활발하게되며 내용면에서도 완벽한 한 가지 답을 얻을때보다 의미가 증폭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얼리티에 있어서도 일직선적인 끝은 내용전개보다는 앞서 들뢰즈가 타리가 지적했던 “multiple roots”는 불명료한 리얼리티를 밝혀내기위해 자연 순환적이며 반복적인 구조를 갖게되고 이러한 패턴은 리얼리티에 대하여 자유로우며 유동적인 재창조를 유발한다. 앞에 나온 애나의 편지는 어쩌면 〈피네간의 경야〉자체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언어에 있어서도 사전적인 구축을 탈피하여 의미 파악을 위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게함으로써 의미를 증폭시켜 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네간의 경야〉의 위와 같은 텍스트적 특질은 언어와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뿐 아니라 인물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곧 언어와 스토리의 의미가 일관성있게 일직선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어 나가듯이 인물에서도 하나의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인물의 다층적인 면이 강조된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더블린 서쪽 교외의 체펠리조드

(Chapelizod) 리파강독에 사는 한 가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쌍둥이인 두 아들, 딸, 이 다섯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족외에 네사람의 노인이 등장한다. 인물들은 각기 독특한 고유의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범우주적으로 유형화 되어 있다. 아버지는 허구의 인물이든, 역사상의 실재인물이든 알려진 모든 남성이 총동원되어 그의 복합적인 남성성을 구축해 간다. 선술집 주인인 그는 성경의 Adam, 아일랜드 전설적 전사이며 영웅인 Finn MacCool를 비롯한 모든 영웅의 전형이 되어 뇌신인 Thor, 프로메시우스, 오시리스, 그리스도, 석가가 되기도 하고, 또는 크롬웰, 성인 패트릭이 되기도 하며, 미국에 이민간 아일랜드인들의 민요에 나오는 벽돌나르는 자인 Finnegan, 워터루 전쟁을 치루는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 아일랜드의 마지막 High King인 King Mak of Cornwall, 크림미아 전쟁의 러시아 장군, 노르웨이 선장, 재단사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다양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또한 HCE라는 이니셜로 표기되며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다양하게 변하는데, 몇 예로 "Humphrey Chimpden Earwicker", "Here Comes Everybody"(32. 18-19), "Haveth Childers Everywhere", "Haveyou-caught-emerod's"(63. 18), "hears cricket on the earth"(138. 26), "Heinz cans everywhere"(581. 5) 등으로 변하는 그는 그야말로 "Haud Certo ergo"(263. 28: nothing crtain therefore)인 존재이다. 이러한 그를 두고 작품에서도 "a manyfeast munificent more mob than man"(261. 21), 또는 "First you were Nomad, next you were Namar, now you're Numah and it's soon you'll be Nomon"(374. 22)라고 하고 있다. 그는 또한 노아, 벨슨제독에서 벌레, 산, 나무, 바위등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벌레, 또는 무생물로 되기도 한다. 어머니도 ALP라는 이니셜로 표기되는데 이는 Anna Livia Plurabelle로 생명력과 다산성을 뜻한다. 그녀 역시 Eve, Isis, Iseult, 구름, 시냇물, 작은 노파, 암탉등 성경, 신화의 인물로부터 동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결실을 맺는 존재, 사랑의 원칙의 존재이다. 쌍둥이 아들 쉘(Shem)과 손(Shaun)은 서로 라이벌 형제로서 남성의 호전적인 양극으로 역사적으로 대치적인 관계들의 원형을 이룬다. 딸 잇시(Issy)는 처녀시절의 ALP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소녀인데 그녀는 rainbow girls 또는 flower girls들인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손은 예술가적 성향이 있는 썸의 글에 나타나 있는 그의 존재에 대하여 “a dividual chaos, perilous, potent, common to allflesh”(FW 186. 4-5)라고 그를 고소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열된 자아를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인 네 사람의 늙은 노인들도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 네 사람의 아일랜드 연대기자들, 네 복음전도자들, 비코의 역사이론에 나오는 네 단계 등으로 이들 또한 역할이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 이처럼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단어와 문장, 일관된 스토리가 해체되듯이 주체(subject)에 있어서도 복잡성과 다층성에 의하여 일관된 인성이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안에 “Ten men, ton men, pen men, pun men . . . den men, dun men, fen men, fun men, hen men, hun men”(FW 278. 18-21)이 “to be slipped on, to be slept by, to be conned to, to be kept up”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서 정확한 철자와 문법을 통하여 리얼리티에 대하여 지배적 시각과 사고를 유발하듯 한 인물에게도 하나의 이름과 일관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한 인간에 대한 통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언어, 텍스트성, 스토리 전개, 인물 이 모두는 어느 통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나 그 자체로 다양함을 산출해내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 II. 욕망의 기계와 텍스트의 기계성

주체의 배제는 곧 중심의 부재를 뜻한다. 언어에서 문법, 인물에서 주체, 스토리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행되는 중심적 사건이 배제된, 곧 중심부재의 〈피네간의 경야〉의 텍스트는 그렇다면 어떤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가고 있는가. 주체의 배제, 또는 다원적 주체를 지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적 특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 인물, 스토리 등에서의 유동성과 생산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질은 작품을 의미를 생산해내는 기계적 성질을 띤 텍스트(“textual machine”)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의 기계(desiring machine)”의 특질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닌다.

해체주의 안에서는 desire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탐구하려는 것이 중요한 경향으로 되어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있어 desire는 libido에서 나온 신비롭고, 분열적이며, 모든 지대에 삼투되어 있으며, 생산성이 왕성한 힘(force)이다. 이에 대하여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How can we sum up this entire vital progression? Let us trace it along a first path (the shortest route): the points of disjunction on the body without organs form circles that converge on the desiring-machines; then the subject -- produced as a residuum alongside the machine, as an appendix, or as a spare part adjacent to the machine -- passes through all the degrees of the circle, and passes from one circle to another. This subject itself is not at the center, which occupied by the machine, but on the periphery, with no fixed identity, forever decentered, defined by the states through which it passes. (*Anti-Oedipus*, 20)

욕망의 세계에는 단지 욕망의 유출에서 우러나는 파편적인 입자들만이 있을뿐 전체주의를 실현시킬 주체(subject)가 없다. 이 세계에서 주체란 단지 서로 모순되는 욕구를 하는 desires들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주체의 중심은 항상 'other'에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체에는 욕망에서 생산된 이질적인 것들간의 갈등과 라이벌 의식이 언제나 존재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무의식은 하나의 기계라고 주장한다. "기계"의 기능은 생산에 있으며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주의를 지향하거나 관장하는 주체의 개념은 기계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주체의 부재와 아울러 선별성이 사라진 욕망안에서는 이질적인 것들이 동시에 생산되어 서로 얽혀있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사물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도 와해되어 센스/넌센스, 자아/비자아, 진리/거짓, 중심/가장자리, 표면/심연, 이성/광기 사이의 차등화도 사라진다. 그리고 추상성보다는 오히려 물질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이 세계안에서는 형이상학적 사고는 붕괴된다. 이

와 함께 상징이라는 독재성, 그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상징 이전의 상태인 직선적이며 융합적인 관계들, 동시성, 시원적이며 조정되지 않은 욕망을 찬양한다.

이들은 프로이트와 맑스로부터 유래한 'desire', 'production', 'machine'이라는 세 개념에서 "욕망의 기계"라고 명명한 새로운 개념을 구축해냈다. 이들의 저서명과 "욕망의 기계"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는 심리학과 경제학이 하나로 융해되어 있다. 욕망의 기계라는 개념을 정립해 가면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먼저 프로이트와 맑스 이론의 구조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경직성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서서 사회경제학적 체제와 심리학은 발원이 같은 것으로 프로이트와 맑스의 논리는 이들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리에 의하면 전통적 맑스주의는 맑스가 세운 대전제(mastercode)의 도식속에 모든 것을 짜맞추려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이 구도에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데 프로이트 이론은 환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세를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설명에 의하여 풀이함으로써 증세에 대하여 일종의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성본위의 편견에 차있고 인간의 무의식에 어느 특정한 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무의식과 desire에 내재하는 잠재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욕망의 본질에 대하여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이해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설명에서 ego, superego, id라는 용어와 이것이 암시하는 전체 대신에 "machine-source-machine"과 같은 표현을 써서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앙띠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의 첫 장, "Desiring-Production"은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시작한다.

It is at work everywhere, functioning smoothly at times, at other times in fits and starts. It breathes, it heats, it eats. It shits and fucks. What a mistake to have ever said the id. Everywhere it is machines -- real ones, not figurative ones: machines driving other

machines, machines being driven by other machines, with all the necessary couplings and connections. An organ-machine is plugged into an energy-source-machine: the one produces a flow that the other interrupts. (*Anti-Oedipus*, 1)

프로이트 이론에서 ‘욕망’을 남성의 성적기관으로 축소시키고 무의식에 Lack, Culture, Law를 부과함으로써 욕망을 구조화하고 축소시키며 억압한다. 그러나 무의식은 사실상 이와는 달리 생산력이 강하고 욕망을 생산해내며 이를 제어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발한다. 아래에서 들뢰즈, 가타리가 설명하고 있듯이 욕망은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생각해왔던 것처럼 더 이상 성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Sexuality is no longer regarded as a specific energy that unites persons derived from the large aggregates, but as the molecular energy that places molecules—partial objects (libido) in connection, that organizes inclusive disjunctions on the giant molecule of the body without organs (numen), and that distributes states of being and becoming according to domains of presence or zones of intensity(voluptas). (*Anti-Oedipus*, 183)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적 구조가 근간이 되어있으며 이 구조는 소위 ego라고 하는 주체가 그 중심에 있다. 이 ego는 구조화해가는 주체로서 사고, 행동, 언어에 구조를 부여한다. 심리학적인 “machine”은 이와는 달리 본질상 어떤 구조라는 틀에 고정되지 않고 충동이나 libido에 의하여 작용한다. 무의식이라는 기계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HCE의 이름은 그가 시공의 어떤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시시각각 그 정체가 달라진다. 이러한 면에서 HCE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생명과 욕망의 구현체가 된다. 〈피네간의 경야〉의 모든 인물들이 이러한 유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물들은 범우주적인 생명, 곧 욕망의 본질이 되고 있다.

들뢰즈, 가타리에 의하면 libido의 이처럼 다층적 본질이 서로 융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특히 예술과 문학에서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desiring machine”(Anti-Oedipus, 32)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들뢰즈, 가타리의 말을 들어본다.

Strange Anglo-American literature: from Thomas Hardy, from D. H. Lawrence to Malcolm Lowry, from Henry Miller to Allen Ginsberg and Jack Kerouac, men who know how to leave, to scramble the codes, to cause flows to circulate, to traverse the desert of the body without organs. They overcome a limit, they shatter a wall, the capitalist barrier. . . . Never has delirium oscillated more between its two poles. But through the impasses and the triangles a schizophrenic flow moves, irresistibly; sperm, river, drainage, inflamed genital mucus, or a stream of words that do not let themselves be coded, a libido that is too fluid, too viscous: a violence against syntax, a concerted destruction of the signifier, non-sense erected as a flow, polyvocality that returns to haunt all relations. How poorly the problem of literature is put, starting from the ideology that it bears, or from the co-option of it by a social order. People are co-opted, not works, which will always come to awake a sleeping youth, and which never cease extending their flame. As for ideology, it is the most confused notion because it keeps us from seizing the relationship of the literary machine with a field of production, and the moment when the emitted sign breaks through this ‘form of the content’ that was attempting to maintain the sign within the order of the signifier. Yet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Engels demonstrated, already apropos of Balzac, how an author is great because he cannot prevent himself from tracing flows and causing them to circulate, flows that split asunder the catholic and despotic

signifier of his work, and that necessarily nourish a revolutionary machine on horizon. That is what style is, or rather the absence of style -- asyntactic, agrammatical: the moment when language is no longer defined by what it say, even less by what makes it a signifying thing, but by what causes it to move, to flow, and to explode -- desire. For literature is like schizophrenia: a process and not a goal, a production and not an expression.

(*Anti-Oedipus*, 132-133)

문학작품을 이질적인 요인을 한데 결합하고 있는 합성체로, 그리고 nomadic하고 polyvocal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것은 욕망이라는 하나의 원천, 즉 욕망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보는 패러독스적인 이 관점은 궁극적으로 desire에 대한 극히 새로운 이해가 있기에 가능할 수 있겠다.

### Ⅲ. 욕망의 사회性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에 대한 시각의 독특한 점은 이들이 욕망의 사회적 성격을 지적한 점에있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욕망은 그 본질에 있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오직 개인에 특유한 성격만을 띄고 있지 않으며 어느 개인에게서 나타난 욕망의 유출은 私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1970년대 불란서 극우파의 슬로건인 “le personnel est politique”라는 말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것은 또한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사이의 구분을 해체했다. 이점에 대하여 들뢰즈, 가타리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다.

For desiring-machines are precisely that: the microphysics of the unconscious, the elements of the microunconscious. But as such they never exist independently of the historical molar aggregates,

of the macroscopic social formations that they constitute statistically. In this sense, there is only desire and the social. Beneath the conscious investments of economic, political, religious, etc., formations, there are unconscious sexual investments, microinvestments, that attest to the way in which desire is present in a social field, and joins this field to itself as the statistically determined domain that is bound to it. Desiring machines function within social machines, as though they maintained their own regime in the molar aggregates that they form at the level of large numbers. (*Anti-Oedipus*, 183)

이처럼 욕망의 본질에 있어서는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군집적인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푸코는 *Anti-Oedipus*의 서문에서 “어떻게 욕망을 사고에, 담론에, 실행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욕망은 그 힘들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전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정립된 질서를 전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렬하게 될 수 있는가?” (*Anti-Oedipus*, xii)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보는 독특한 서술은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작품의 독특한 서술에서 이러한 욕망의 발현을 찾아 볼 수 있겠다.

Sir Tristram, violer d'amores, fr'over the short sea, had passencore rearrived from North Armorica on this side the scraggy isthmus of Europe Minor to wielderfight his penisolate war: nor had topsawyer's rocks by the stream Oconee exaggerated themselfe to Laurens County's gorgios while they went doublin their mumper all the time: nor avoice from afire bellowsed mishe mishe to tauftauf thuartpeatrick: not yet, though venisssoon after, had a kidscad buttended a bland old isaac: not yet, though all's fair in vanessy, were sosie sesthers wroth with twone nathandjoe. Rot a peck of pa's malt had Jhem or Shen brewed by arclight

and rory end to the regginbrow was to be seen ringsome on the aquaface. (FW 3. 4-14)

위의 문단은 〈피네간의 경야〉시작의 두번째 문단으로 서문격으로 이 작품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며 동시에 인류역사의 흐름에 대한 서술이기도 한 다. 첫 줄의 “Tristram”은 아이더왕의 전설적인 장군인 Tristan일 수도 있고, 또는 호우드 성(Howth Castle)을 세운 성 로렌스(St. Lawrence)家の 조상인 Sir Almeric Tristram일 수도 있어 그의 이름은 전설, 문학, 역사적 내용을 동시에 암시한다. 이 Tristram을 가리켜 “violer d’amores”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명칭에는 예술, 사랑의 의미와 또한 전쟁의 의미가 들어있다. “violer”는 침략자 “a violator”이며 또한 악기 “viola”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mores” 역시 갑옷을 가리키는 “armor”와 사랑이라는 뜻의 “amour” 그 어느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트리스트램과 Mark왕, Isolde(Iseult) 사이의 관계에는 사랑과 전쟁, 또는 에로스와 정치학이 서로 얽혀있는 또 다른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트리스트램은 기사로서 그리고 영국 Mark왕의 조카로서 왕비가 될 Isolde를 아일랜드에서 영국까지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되어 비올라로 사랑의 노래를 켜기도 하지만 이 사랑에는 그녀와 자신이 섬기는 왕을 똑같이 침해하게되는 파괴성이 들어있다. 트리스트램의 사랑은 왕을 배반하고 그에게 도전하는 정치적 성격을 띄게된다. 그리고 또한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의 세대간의 대치를 나타내며 이 갈등은 주요한 모티브로 작품 전반에 걸쳐 반복하여 나타난다. 여기서 트리스트램이 이슬데와 사랑에 빠진 행위는 단순히 사랑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복합적 양상을 띄고 있다. 위트 글에서 기존의 집권층에 대한 젊은층의 도전행위와 사랑이, 또는 에로스와 정치성이 무의식속에서 분리되지 않은채 융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상반된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재되어있는 경우는 심지어 North America 또는 North Brittany라는 곳을 나타내는 North Armorica라는 지리명에서도 발견된다. Armorica 역시 America라는 의미와 더불어 armor와 amour의 두 단어가 중첩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리스트램과 관련된 또다른 전쟁에 관한 언급으로 *wielderfight*란 어휘는 독일어에서 *wieder*(again)에서 유래한 것으로 *fight again* 또는 *refight*란 뜻이다. 또는 *wield weapons in wild fight*로 읽을 수 있겠다. *penisolate war*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Peninsular War*(나폴레옹과 웰링턴 장군의), *penis-(des)olate, the war of the pen in isolation*를 망명중인 예술가 썸이라는 문필가의 외로운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HCE의 두 아들, 즉 *pen*으로 상징되는 예술가 *Shem*과 *sword*으로 상징되는 정치가적 타인의 *Shaun*이 두 형제의 라이벌의식을 암시하기도 한다. 형제간의 다툼은 성경에서 눈먼 아버지인 *Isaac*을 속이고 사슴가죽을 쓰고 형인 *Esau*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Jacob*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어 이 작품의 주요한 인물로 여러번 나오는 조나탄 스위프트("athandjoe")를 두고 두 여성(*sosie*: 불어로 쌍둥이란 뜻)인 *Stella*와 *Vanessa*(*vanessy, sesthers*: 이 두 여성은 똑같이 *Esther*라는 이름을 지님)가 벌리는 사랑싸움이 나온다. HCE의 두 아들은 마지막 문장에서는 *Jhem*과 *Shen*으로 되어 아버지의 맥아를 발효시키며 아버지가 해왔던 일을 이어서 계속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것은 애증의 갈등 외에도 *doublin*이라는 말로써 자손의 변창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 반복되는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미국 조지아주의 로렌스 카운티에 *Oconee*강이 있는 더블린이란 도시는 원래 아일랜드의 더블린 출신인 *Peter Sawyer*(*topsawyer*)가 세운 도시로 이곳의 인구는 5000정도 된다(*exaggerated themself: another dublin 5000 inhabitants*).

외지로부터 들어와 아일랜드 땅에 발을 들여놓은 트리스트램이란 이름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사랑과 전쟁, 에로스와 정치라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인류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흐르는 욕망안에는 사랑/전쟁, 에로스와 정치, 펜/무기라는 서로 다른 속성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복합적인 속성을 지닌 이 욕망은 마치 주제와 변주처럼 때로는 사랑의 면모를 하고 때로는 전쟁의 형태로, 심지어 지명으로 그 모습을 달리해가며 나타난다.

이슬데를 얻기 위하여 아일랜드로 들어왔던 트리스트램의 행위는 사랑을 구애하는 행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이방인의 침입에 시달려온 아일랜드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에게는 무력적 침입의 생각을 으

례히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더블린에 이방인의 침입은 남녀의 결합과도 맞물려 있다. 에로스와 정치, 전쟁이 서로 맞물려 있어 이 둘은 각기 상반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천인 욕망에서 유래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욕망에 대한 프로이트식의 상징과 추상적 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본다. 곧 욕망이라는 것은 사적인 에로스적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욕망에 대한 이해는 에로스적 속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적 속성을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피네간의 경야〉의 시작하는 문단에서는 그것이 실제의 역사든, 전설속의 역사든, 또는 성서나 문학속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속에 면면히 흐르는 전쟁과 사랑의 이중창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과 사랑은 왜 인류의 역사속에 필연적으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붙어 나오는 것일까. 작가가 스스로가 “인류의 역사”라고 부른 이 작품의 시작은 왜 하필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가 서로 엮어져 나온 것으로 시작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들뢰즈, 가타리는 먼저 욕망의 중심적 에너지라 할 수 있는 복합적 속성을 지닌 libido의 사회적 삼투를 이렇게 지적한다.

We have seen on the contrary that what the libido invested, through its loves and sexuality, was the social field itself in its economic, political, historical, racial, and cultural determinations: in delirium the libido is continually re-creating History, continents, kingdoms, races, and cultures. (*Anti-Oedipus*, 352)

Delire란 원래는 “delirium”(일시정신착란), 또는 “delirious”(헛소리하는, 광란상태의)에서 유래한 단어로 delirious한 생각이나 언어는 욕망이 외부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형태로 표면적 효과이다. libido는 사회적, 즉, 인종적, 정치적, 역사적인 속성을 지니고있어 정치적인 분야와 개인적인 분야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무의식이 정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무의

식이 배출한 libido 역시 정치성을 띄고있다. 정치적인 분야와 심리학적인 분야 모두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같은 형태의 에너지인 libido가 삼투하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나 표현은 어떤면에서 모두다 정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만 속하는 생각이란 있을 수 없다.

에로스/전쟁, 심리학/정치학, 개인/사회등의 상반된 것들의 구분이 와해된 저변에는 주관/객관, 이성/비이성의 구분의 해체가 일어난다. 이에 대하여 들뢰즈, 가타리의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ibidinal economy is no less objective than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al no less subjective than the libidinal, even though the two correspond to two modes of different investments of the same reality.. . . That is why it is so futile to attempt to distinguish what is rational and what is irrational in a society. (*Anti-Oedipus*, 345-346)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의 성질 그 자체로 “revolutionary”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특성으로 인해 사회의 경직된 구조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If desire is repressed, it is because every position of desire, no matter how small, is capable of calling into question the established order of a society: not that desire is asocial, on the contrary. . . . Despite what some revolutionaries think about this, desire is revolutionary in its essence . . . .

If a society is identical with its structures -- an amusing hypothesis -- then yes, desire threatens its very being. . . . Desire does not ‘want’ revolution, it is revolutionary in its own right, as though involuntarily, by wanting what it wants.

(*Anti-Oedipus*, 116)

들뢰즈, 가타리는 욕망의 특질로서 “escape”와 “integration”을 지적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욕망의 “revolutionary”한 속성이 되고 있다.

Do these psychoanalysts who are oedipalizing women, children, blacks, and animals know what they are doing? We dream of entering their offices, opening the windows and saying, “It smells stuffy in here -- some relation with the outside, if you please.” For desire does not survive cut off from the outside, cut off from its economic and social investments and counterinvestments. And if there is, to use Freud’s terms, a “purely erotic motive,” it is certainly not Oedipus that harbors it, not the phallus that actuates it, nor castration that transmits it. The erotic, the purely erotic motive pervades the social field, wherever desiring-machines are agglutinated or dispersed in social machines, and where love-object choices occur at the meeting place of the two kinds of machine, following lines of escape or integration.

(*Anti-Oedipus*, 357)

욕망에 대하여 프로이트식으로 오직 에로스적인 성격을 벗어나 사회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을 때 즉 욕망의 기계(desiring-machines)가 사회적 기계(social machines)가 되었을 때 이 사회에 스며든 욕망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욕망의 기계는 사회속에서 agglutinated 또는 dispersed 하며 “escape” 또는 integration의 동선(動線)을 취한다. 곧 확산과 통합이 지속적으로 교차해가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양태 또한 〈피네간의 경야〉의 인물과 서술, 언어, 스토리 진행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곧 일정한 목표점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욕망의 움직임처럼 확산과 통합의 움직임만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중성, 다원성과 미확정성, 불확실성, 애매모호함 등으로 표현되는 이 작품의 특성이 유래하게 된다.

이와같은 특성들의 공통된 점은 유동성에 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동반한다. 다시금 들뢰즈, 가타리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We have seen on the contrary that what the libido invested, through its loves and sexuality, was the social field itself in its economic, political, historical, racial, and cultural determinations: in delirium the libido is continually re-creating History, continents, Kingdoms, races, and cultures. . . . It is merely a question of ascertaining that our choices in matters of love are at the crossroads of “vibrations,” which is to say that they express connections, disjunctions, and conjunctions of flows that cross through a society, entering and leaving it, linking it up with other societies, ancient or contemporary, remote or vanished, dead or yet to be born. . . . But flows and codes of socius that do not portray anything, that merely designate zones of libidinal intensity on the body without organs, and that are emitted, captured, intercepted by the being that we are then determined to love, like a point-sign, a singular point in the entire network of the intensive body that responds to History, that vibrates with it. (*Anti-Oedipus*, 352)

욕망의 핵심적 요인인 libido가 분산되어 사회의 다방면에 침투되어 가는데는 그것의 다원성과 역동성이 작용한다. 이 libido의 진동은 끊임없이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마치 지하에서 rhizome가 뻗어나가는 방식처럼, 그리고 물의 흐름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연결되어간다. 이러한 흐름과 움직임을 통괄하여 소위 역사를 만들어 간다. 앞서 〈피네간의 경야〉의 인용에서 인류역사에 면면히 흐르는 욕망이 동시에 사랑과 전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들뢰즈, 가타리의 지적대로 욕망은 끊임없이 흐름을 계속하고 서로 연결하고, 분열하며 결합(“connections,

disjunctions, and conjunctions of flows”)하는 속성을 지닌다. 여기서 사랑만큼 이러한 특성을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질적인 것(또는 상대)과 결속력이 강한 사랑은 사회성 또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들뢰즈, 가타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In short, our libidinal investments of the social field, reactionary or revolutionary, are so well hidden, so unconscious, so well masked by the preconscious investments, that they appear only in our sexual choices of lovers. A love is not reactionary or revolutionary, but it is the index of the reactionary or revolutionary character of the social investments of the libido. The desiring sexual relationships of man and woman (or of man and man, or woman and woman) are the index of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Love and sexuality are the exponents or the indicators, this time unconscious, of the libidinal investments of the social field. Every loved or desired being serves as a collective agent of enunciation. And it is certainly not, as Freud believed, the libido that must be desexualized and sublimated in order to invest society and its flows; on the contrary, it is love, desire, and their flows that manifest the directly social character of the nonsublimated libido and its sexual investments. (*Anti-Oedipus*, 352-3)

사랑을 통하여 욕망의 사회성과 역동성을 볼 수 있다. 역동적이며 언제나 이질적인 것과 결합되도록 준비되어 있고, 다중적이며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이 특성으로 인하여 욕망은 그 자체로 revolutionary한 특성을 띄고 있으며 이 특성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인 것이다.

욕망의 사회적 성격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들뢰즈, 가타리는 문학 담론을 제시한다. 이들은 카프카 작품에 대한 비평을 통해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이들의 공저인 *Kafka*에 실린 인터뷰에서 가타리는 카프카의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를 가리켜 “bureaucratic eros”라고 명명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카프카 문학을 지속적으로 유출, 결합, 분리해가는 “textual machine”으로 비유하고, 카프카의 “소수문학”에서는 그것이 초월적 사회법이거나 아니면 도처에 깔려있는 schizo-law이건 간에 똑같이 사회적인 분야에 무의식적 욕망이 투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심리적인 어떤 증상에도 정치적인 속성이 내재되어있다면 극히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예술적 표현도 사실은 정치적, 심리적 억압에 대항하는 정치적 표현이 될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카프카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는 생산력이 강한 기계를 가동시키는 주체인 욕망의 산출양식에서 에로스와 정치성의 관계, 또는 에로스의 정치적 성격을 보다 더 확연하게 보여준다.

#### IV. 물질적 언어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이 독특하면서 괄목할만한 점은 심리학과 경제학이 융해된 “욕망의 기계”라는 그들의 용어가 암시하듯이 그동안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심리분석학이라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 곧 추상적인 사고의 세계와 맑스의 사회과학과 경제라는 물질적 세계가 서로 통합되어 있으며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이론에는 심리학과 경제, 추상성과 물질성, 개인과 사회라는 기존의 구분은 해체되어 심리학이 곧 경제학이 되고, 추상성과 물질성은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과 사회 또한 별개의 개체가 아니다. 들뢰즈, 가타리의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맑스의 유물론적 사관을 하나로 융해시킨 “욕망의 기계”이론은 심리적, 사회적 진행(psychosocial progression) 또는 유물론적 정신의학(materialist psychiatry)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에서 들뢰즈, 가타리는 무의식의 물질성과 이것이 언어와 의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한다.

The unconscious poses no problem of meaning, solely problems of use. The question posed by desire is not "What does it mean?" but rather "How does it work?" How do these machines, these desiring-machines, work -- yours and mine? . . . It represents nothing, but it produces. It means nothing, but it works. Desire makes its entry with the general collapse of the question "What does it mean?" No one has been able to pose the problem of language except to the extent that linguists and logicians have first eliminated meaning; and the greatest force of language was only discovered once a work was viewed as a machine, producing certain effects, amenable to a certain use. . . . But on condition that meaning be nothing other than use, that it become a firm principle only if we have at our disposal immanent criteria capable of determining the legitimate uses, as opposed to the illegitimate ones that relate use instead to a hypothetical meaning and re-establish a kind of transcendence.

(*Anti-Oedipus*, 109)

이처럼 언어의 물질화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보다는 의미를 생성해내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의미란 하나의 초월적인 것으로 결정론적인 한계를 가하는 존재이다. 의식이 물질적으로 될때 비로소 압박을 가하는 의미에서 해방된다.

Analysis termed transcendental is precisely the determination of these criteria, immanent to the field of the unconscious, insofar as they are opposed to the transcendent exercises of a "What does it mean?" Schizoanalysis is at once a transcendental and a materialist analysis. It is critical in the sense that it leads the criticism of Oedipus, or leads Oedipus, to the point of its own self-criticism. It sets out to explore a transcendental unconscious,

rather than a metaphysical one; an unconscious that is material rather than ideological; schizophrenic rather than Oedipal; nonfigurative rather than imaginary; real rather than symbolic; machinic rather than structural -- an unconscious, finally, that is molecular, microphysical, and micrological rather than molar or gregarious; productive rather than expressive. And it is a matter here of practical principles as directions for the "cure".

(*Anti-Oedipus*, 109-110)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에서 물질의 심리화, 심리의 물질화라는 사고 유형, 곧 이들의 이론이 암시하는 추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사이의 이분법의 해체는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 이해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 <피네간의 경야>는 언어가 외부 리얼리티를 묘사하는 기능을 갖기 보다는 언어에 의하여 리얼리티가 어떻게 만들어져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물질화(materialize)'란 언어를 추상적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의 살아있는 물체처럼 생산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때 언어는 외부의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피동적인 기능에서 오히려 그 '리얼리티'를 창조해내는 역동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언어의 이 기능으로 인하여 리얼리티에 대한 시각은 다양해지고 더욱 잠재력있게 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리얼리티가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언어의 물질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남성의 언어보다는 여성의 언어에서 그 예를 더 찾아 볼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여성언어는 여성을 상징하는 '물의 언어'로 언어에서 추상적 개념이 배제된 자연의 소리에 가깝다. 여성의 언어는 그 생산성과 모성성으로 남성언어가 가지는 사고의 틀에 도전하며 추상성에 근거한 남성적 사고를 모두 포용해 버리는 것이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여주인공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Anna Livia Plurabelle*)은 이름 그 자체가 생명과 다산성을 나타낸다. Anna는 아일랜드의 생명의 여신들 중 가장 오래된 여신의 하나인 Ana를 가리키며,

Livia는 Liffy(Life란 뜻)강, 또는 동사 live를 상기시킨다. Plurabelle은 다수를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또한 〈피네간의 경야〉의 1권 5장은 다음과 같이 애나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다.

In the name of Annah the Allmaziful, the Everliving, the Bringer of Plurabilities, haloed be her eve, her singtime sung, her rill be run, unhemmed as it is uneven! (FW 104.1-3)

이것은 주기도문의 패로디이며, 동시에 “In the name of Allah, the Merciful, the Compassionate”로 시작되는 코란의 장(Suras of the Koran)의 시작에 대한 패로디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Mother of the World” (Campbell and Robinson, 96)이며 Mother of Word이다. 그녀는 또한 리피강을 따라 흐르는 작은 실개천(rill)이며 그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속박하지 못하고(unhemmed) 정연하지도 않다(uneven).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영원한 생명체(Everliving)이며 다산성(Bringer of Plurabilities)의 뮤즈이다. 애나의 이와 같은 특징은 들뢰즈, 가타리가 지적한 욕망의 속성과 닮았다. 강으로 나오는 구불구불 흐르는 시냇물처럼 유동적이며, 자연 그 자체로 추상적 논리를 초극해나가는 그녀는 그야말로 “all-dissolving, all-refreshing, all- recreating”(Campbell and Robinson, 132)한 존재이다. 〈피네간의 경야〉 1권, 7장의 마지막 문단에서 라이벌 형제인 썸과 손은 “JUSTIUS”와 “MERCIOUS”, 또는 “deathbone”과 “lifewand”가 되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지만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하고 끝내 썸은 손의 질책에 의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몹시 고통스러워한다. 어떤 결론이나 돌파구도 찾지 못하는 그에게 어머니 애나 리비아가 나타난다.

with a beck, with a spring, all her rillringlets shaking, rocks drops in her tachie, tramtokens in her hair, all waived to a point and then all inuendation, little oldfashioned mummy, little wonderful mummy, ducking under bridges, bellhopping the weirs,

dodging by a bit of bog, rapidshooting round the bends, by Tallaght's green hills and the pools of the phooka and a place they call it Blessington and slipping sly by Sallynoggin, as happy as the day is wet, babbling, bubbling, chattering to herself, deloothing the fields on their elbows leaning with the sloothering slide of her, giddy-gaddy, grannyma, gossipaceous Anna Livia.

He lifts the lifewand and the dumb speak

- Quoiquoiquoiquoiquoiquoiquo! (FW 194.30-195.6)

예술가 기질을 지닌 웹에게 어머니 애나 리비아가 다가왔을 때, 그는 생명의 지팡이(lifewand)를 쳐들었으며 병어리와 같았던 그의 입이 비로소 열린다. 물로 상징되는 애나가 등장하는 모습은 물의 흐름을 닮았다. 리드미컬하고 율동적이며 경쾌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손짓을 하며 시냇물과 같은 고수머리를 흔들며 핸드백에는 돌멩이가, 머리에는 전차표를 갖고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구식의 어머니가 오고있다. 애나의 기다란 흐르는듯한 머리결은 시냇물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다리 아래에서는 머리를 물속에 잠깐동안 잠겼다가 이내 쳐들고, 강둑에 다달았을 때는 소리를 내며 강층 뛰어 오르고, 늪에 다달았을때는 날쌔게 피하고, 굴곡진 부분에서는 재빨리 날듯 흐른다. 그녀의 말은 시냇물의 찰랑거리는 소리처럼 의미없는 조잘대는 소리(babbling, bubbling, chattering)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녀는 유쾌하고 명랑한 수다장이(gossipaceous) 애나 리비아인 것이다.

애나 리비아가 오는 모양은 직선적이지 않고 강의 흐름처럼 구불구불하다. 강의 전신인 그녀는 조그마한 시냇물이 되어 언덕을 돌아서 습지를 지나 벌판을 가로질러 아들에게로 온다. 그녀의 움직임은 시냇물의 모양새, 물소리를 닮아 사실적이며 자유롭고 자연의 움직임처럼 자유분방하다. 속삭이는 애나 리비아의 말은 이론적인, 추상적 논리로 설명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힘이 충만되어있는 언어이다. 그녀의 이 힘앞에 그녀의 두 아들의 논쟁에서 보는 지배적 이념이나 추상적 논리는 무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녀가 아들앞에 나타났을 때 두 아들이 벌렸던 이론적 경합은 힘을 잃는다. 그녀는 지배적 이념으로 묶어두려는 어떠한 시도도 물이 지나는 지속성과 변화무쌍한 유동성으로 뛰어넘어가며 생명의 흐름을 지속해가고 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그녀는 생산적 본질 그 자체로 그녀의 기능은 생산성에 있으며 추상적, 도덕적, 관념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녀가 지닌 생명력은 도덕적 판단이나 기준, 또는 정당성과는 무관한 듯 보인다. 바로 들뢰즈, 가타리가 지적한 욕망의 기계의 속성을 닮았으며 그녀의 흐름 또한 rhizome가 뻗어가는 모양처럼 일정한 목표지점을 향하여 똑바로 흐르지 않고 구불구불 흐르다가 막힌 데는 돌아가고, 즐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변모해가며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기 보다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여성의 이 자연 언어는 앞서 들뢰즈, 가타리가 지적한 것처럼 개념이 배제된 의식과도 같다. 이 언어는 관념적 언어라기 보다는 의미가 배제된 물질적 언어이다. 이것은 또한 로랑 바르트가 그의 저서 *Writing Degree Zero*에서 “a colourless writing, freed from all bondages to a pre-ordained state of language” (Barthes, 76)라고 특징지은 언어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 의미가 배제된 언어는 독특한 하나의 의미를 뜻하는 상징적 언어이기 보다는 생산적 언어로 다수의 의미를 양산하게 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에 대하여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n these two aspects (contradiction between naming and polynomia, contradiction between symbolic and asymbolized), scriptural heteronomia does not come into play between two ‘sames’ that repulse one another or dissolve within one unity. So, too, it avoids Hegelian and post-Hegelian ‘aesthetic religion.’ Never producing ex nihilo, without an origin, it includes a production. ‘Without origins’ means that it is a superimpression or a suppression of a first, primordial meaning, which is always for Barthes a neutral symbolic, an unmarked code, an unwritten

language, a void meaning. 'It includes a production' means that the polynomic superimpression (suppression of first and, when all is said and done, null meaning), identifiable within language, is a supercathexis of the symbolic 'void' by a biological-social, instinctual substratum left intact by the first symbolization (by natural language) and thus, in a sense, preceding it so as to look back upon the scriptural act through the interplay of 'primary processes,' of the 'signifier's logic,' bursting across and through the language of a book-free dramatized subject. (Kristeva, 112)

애나 리비아를 표현하는 언어는 본능적인 충동에서 우러난 언어 이전의 언어(pre-verbal)로 본질적으로 다이내믹하고 불안정하다. 그녀의 언어는 언어의 규칙인 문법에 간혀 있지 않으며 언어의 원래의 본질인 물질적 성격을 억압하는 주체로 부터도 해방되었다.

애나 리비아의 언어를 포함하여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에서 크리스테바가 지적한 언어의 반영된 두 상반된 양상들, 곧 지배하고자하는 주체와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려는 본능적 의지 사이의 갈등과 이 두 힘의 대치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들뢰즈, 가타리는 정신분열증을 통하여 주체를 통한 제압과 원래의 분열적 상태인 혼돈의 재출현과의 갈등을 구현하고 있다. 이때 주체가 암시하는 중심, 또는 제어는 언제나 저변에 억눌려있는 돌출하려는 힘에 의하여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의식의 중심이라는 생각, 사회적으로 '정상'이라는 생각은 단지 신체에서 우러나는 본능과 충동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소산이며 이것은 일시적이며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두 종류의 언어가 갈등을 일으키는 텍스트로 조직적이며 추상적인 언어와 언어의 원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언어 사이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조정하는 주체에 의하여 지배되며 제어하는 수단이 되는 언어가 되기도 하는 반면에 조직적이지 못하고 일련의 소리들로 이루어져있고, 충동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으로, 개개인 화자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적 언어가 있다. <피네간의 경야>에는 이 두 언어가 맞물려있

다. 물질적인 언어는 억압되지만 분열적인 힘으로서 표면에 거둬 부상한다. 이 작품은 이 두 타협의 언어가 표방하는 각각 다른 차원의 세계가 빚어내는 갈등과 모순의 과정을 보여준다.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심적 주체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분들을 회미하게 되고,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파편적이며 복합적인 텍스트를 갖추게 된다. 들뢰즈, 가타리는 억압으로 인해 갇힌 상태를 편집증(paranoid)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치물로 그는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을 제시했다. 언어 이전의 충동과 언어의 구문론적 조직체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언어상태를 이 정신분열증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 정신분열증은 텍스트에 퍼져있으며 주체를 와해시키고 독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면적인 질서를 보전함으로써 독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적이라 해서 논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보다는 정체성의 논리나 양립되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논리가 아닌 패러독스적인 논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는 기표와 기의를 확정짓는 주체가 부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기표는 무수하게 넘쳐난다. 따라서 확정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물질적 언어(소리, 기표)로 충만해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주체가 불안정하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늘 가변적인 이 텍스트의 언어는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나 '과정'에 놓여 있게 된다. 반(反)문자적이고 언어이전의 언어는 언제나 이 '과정'의 일부로만 머물러있다. 주체란 언어에 부과한 질서에 의하여 형성되며 영위되기때문에 질서밖에 놓여있는 언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주체가 부재되었을 때 언어는 자연적 성격, 또는 모성적 성격을 띄게되며 구성물들이 불안정하게 결합되어있게 된다. 이 결합은 또한 하나로 통일된 단일체적 조직이 아니라 다수의 단편들로 구성된 불명료한 집합체이다.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와 문장들은 일상적으로 준수하는 규정들을 지키고 있지 않기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를 다른 작품들에게서 얻는 방식대로 얻을 수 없다. 문장이 매우 잘 짜여져 있다면 이것은 확실한 의미를 산출해 내겠지만 이 명백한 의미는 차등화와 폐쇄적 성격을 지닌 제도의 소산물이다. 구문론적으로 문법에 맞는 문장은 의미를 강화시

키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화시키거나 동결시켜 고정된 단일체로 만든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의미를 해체해가며 동시에 만들어가게하는 근본적 전략은 언어를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에서 비롯된다. 이때 언어는 개념적으로 구사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의미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paranoid적 언어가 아니고 schizophrenia적 언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언어사용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이론을 제기하고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문법체계에 들어맞는 언어 대신, 자연어, 물질적 언어를 부활시킴으로서 사고와 인식의 면에 있어서도 다원화되고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 V. 결 론

언어를 통하여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적인 기능인만큼 문학과 리얼리티의 관계는 어느 시대이든 문학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 20세기에 들어와 문학에서 리얼리티 재현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게 된 것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에 대한 이론에서 시작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는 더 이상 언어는 외부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로 볼 수 없게 했다. 모더니즘 문학에서 언어에 대한 자의식은 철저하며 그에 대한 논란 또한 맹렬할 정도였다. 이제 포스트모던 문학에서는 해체주의 이론과 맞물려 언어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심화되고 접근도 다양해졌는데 가령 푸코와 같은 해체주의는 권력과 언어의 상관 관계, 페미니즘에서는 *écriture feminine*과 같은 여성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랑 바르트는 그의 저서 *Pleasure of the Text*나 *Sade, Fourier Loyola*에서 언어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Writing Degree Zero*, *The Rustle of Language* 등의 저서에서도 언어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속성에 대한 탐구로 인하여 언어의 기능을 더욱 더 증폭시켜 나간다. 포스트모던 문학에서 이처럼

럼 언어에 대하여 전혀 생소한 개념을 부여하며 언어의 속성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작금에 있어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 실험은 극히 중요하다 하겠다.

〈피네간의 경야〉와 들뢰즈, 가타리의 *Anti-Oedipus*와 *A Thousand Plateaus*는 지금까지 지적한 이 작품의 언어, 서술, 텍스트상의 특질과 욕망 이론이 공유하는 해체성, 문화적 감성과 철학의 동질성 외에도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흡사하다. 이 두 텍스트는 전통적 문학과 철학을 다시 읽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또한 내용에 있어서 분리, 배제, 선택의 방법보다는 통합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서술에 있어 패쇄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내용진행에 있어서도 전진적이기보다는 순환적 패턴을 사용한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가 이성과 명백함을 해체하는 해체주의적 효과를 가지고 있듯이 들뢰즈, 가타리의 철학은 이성적인 논리가 바탕이 되기보다는 문학적 특질을 철학에 도입함으로써 텍스트상의 의미 증식을 꾀하고 있다. 이들은 논리 그 자체의 구조를 변형하기 위해서, 또는 중심적 서술의 압도성을 해체하도록 의도적으로 모순된 논지를 펴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들은 참으로 복잡적이며 양립이 안되는 언어의 유희를 보인다. 그러나 감축할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새롭고 더욱 포괄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텍스트는 그야말로 *machine*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문학, 철학에서 똑같이 중심적인 기존의 체계를 담대하게 분해시키고 대신 *difference*의 유희를 펼쳐보이는 것이다. 마치 막다름에 이른 이성의 한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양. 그러나 이 유희는 인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얼핏 생소해보이는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와 들뢰즈, 가타리의 철학서는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삶, 파편적이면서 동시에 탐험적이고, 또한 창조적인 유기체적 삶을 더욱 현실적으로 재현한다.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나 들뢰즈, 가타리의 욕망의 기제는 명쾌한 설명이나 전래적인 질서구조를 거부하는 삶 그 자체와 같다.

## Cited Works

- Barthes, Roland. *Writing Degree Zero*, trans. Lavers and Colin Smith. Boston: Beacon Press, 1970.
- Campbell, Joseph and Henry Morton Robinson.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44, 1986.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and Helen R. Lan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3.
- \_\_\_\_\_.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 Foreword.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7.
- Joyce, James. *Finnegans Wake*. 1939. 3rd ed. London: Faber & Faber, 1984.
- \_\_\_\_\_. *Letters*. III. Ed. Richard Ellmann (Vol. II and III). New York: Viking; London: Faber, 1957, 1966.
- Kri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ed.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P, 1980.
- Potts, Willard. ed. *Portraits of the Artist in Exil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9.